

세계적인 작가 팔복예술공장서 만나다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서 마누엘 A. 디에스트로의 사진전 'Boxification' 오픈닝 성료
 곤살로 오르티스 주한스페인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정정숙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등 참석
 국내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을 스페인 등 주요 인사들에 소개

세계적인 시각예술작가의 사진전이 국내 도시 재생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곤살로 오르티스 주한스페인 대사, 스페인작가인 마누엘 A. 디에스트로,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누엘 A. 디에스트로의 사진전 'Boxification:상자화' 오픈닝을 개최했다.

마누엘 A. 디에스트로는 스페인 산탄데르 출생으로 영화 및 사진작업에 종사하는 시각예술 작가로, 그간 스페인과 핀란드, 스웨덴, 이집트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현대도시의 풍경과 사람 사는 풍경을 주로 스케치하는 작가인 디에스트로는 미국과 폴란드, 이란, 멕시코 등지의 영화제에서 작품 상영을 해왔으며, 이번전시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돼 오는 8월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디에스트로는 이번 '상자화' 전시에서 '4피트 가 되는 상자(컨테이너박스)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착안한 사진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게 된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항구에서 해상화물 컨테이너를 관찰해 작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민들에게 해외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문화자수 1위인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회는 특히 주한스페인대사 등 주요 해외VIP 들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의 랜드마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 전주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문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 등을 통해 전주민의 고유문화를 해외로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해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스페인사진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5일 이후부터는 미국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전주세계문화주간 미국문화주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설정 총무원장 "조속한 시일내에 진퇴여부 결정"

기자회견서 숨겨진 딸 논란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사죄의 뜻 피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7일 "조속한 시일내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을 모색해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퇴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뜻을 모아준다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종 스님 사회로 전행된 이날 회견에서 설정스님은 "중현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갈등과 분규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종단은 종도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려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중현종법 질서를 근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종단의 손을 떠나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숨겨진 딸 논란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사죄의 뜻도 피력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저와 관련된 일로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겪은 심적 고통도 토로했다. 그는 "사실여부를 떠나 종도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했다"며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에 한 사람의 수행자로 큰 부담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설정 스님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바로 퇴장했다. 설정스님은 MBC가 시사프로그래를 통해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에 휩싸이며 2선 후퇴 압박을 받아왔다.

미국 하와이 무량사 주지인 도현 스님도 앞서 지난 24일 설조 스님 단식농성장 인근 우



정종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여성이 설정 스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

베스트셀러 차트, 유시민 5주연속 1위... 정재승·백세희 주목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가 5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7월 18~24일 차트에서는 순위변동이 두드러졌다.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열두 발자국'이 전 주보다 2계단 올라 2위에 걸렸다.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역시 2계단 올라 3위에 랭크됐다.

하태완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2계단 떨어진 4위다. 인생 명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도 2계단 떨어져 5위가 됐다. 정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는 그대로 6위다.

일본 사회학 추리소설가 야쿠마루 가쿠의 '볼이킬 수 없는 약속'은 8계단 뛰어올라 7위

에 올랐다.

인터파크도서 19~25일 차트에서도 '역사의 역사'가 5주 연속 1위를 달렸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열두 발자국'이 2, 3 위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등 상위권 인기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뉴스

고창서 만나는 'KBS국악한마당'

폭염으로 장소변경... 31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군수 유기삼)이 KBS방송국과 함께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KBS국악한마당' 고창군 편을 준비해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을 전한다.

KBS국악한마당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의 무대와 함께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첫 무대는 국악 소녀로 유명한 송소희와 혼성 6인조 퓨전밴드 두번째 달이 창작국악 '매화타령'으로 무대를 열고, '태평가'와 '비나이다'를 구성지고 애달픈 송소희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퓨전음악으로 색다른 만남을 펼친다.

두 번째 무대는 이난초 명창과 전통에 약인 누리춤 이종규 대표, 민속악단 시나위의 '허튼पुर리'로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선사한다.

또 음악 전문방송에서 그랜드 마스터로 등극한 장문희명창이 창작국악 '귀천'을 들려주고, 그의 제자들과 입체창으로 '심청가 중 방아타령'을 선보인다.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의 기악 합주 '사계절의 노래', (사)고창농악보존회가 '판과 고깔소고춤'으로 고창 농악의 백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마지막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제27회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한 왕기철 명창과 국립민속국악원장 왕기석 형제명창이 '홍보가 중 화



조장 대목'을 입체창으로 선사한다. 두 형제의 매력이 각기 달라 상상과 조화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담초 고창읍성 앞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폭염으로 인해 고창문화의전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되어, 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국악공연이 펼쳐질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8세 이상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는 KBS전주방송총국 063)270-7393, 고창문화의전당 063)560-8041~2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한 여름밤의 콘서트

지역문화발전 전통문화고장 보존 전승 앞장... 관객에게 즐거움 선사

한국시낭송문화 디딤돌(대표 고순복)주관으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여름밤의 콘서트'가 지난 25일 물의 거리 특설무대에서 많은 주민과 함께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주는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우리 고장의 자생문화단체인 추담관소리 보존회, 석암정가와 시조 보존회, Play Together'색소폰 연주단, 한국시낭송문화디딤돌이 협연을 하여 참여 관객에게 즐거운 여름밤을 선사하였다.

작지만 순수 민간인이 그간 여러 문화단체를 통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민과 마을을 찾아가는 형식의 공연은 앞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전통문화고장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한국시낭송문화디딤돌(대표 고순복)은 "앞으로 화려한 무대보다 소외되고 구석진 문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장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공헌하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